

[09-09-30] 수요일간증- 주온빛

0909818새벽 03:29 주신 섭리사 당부의 예수님의 편지 말씀 중 주신 시입니다.

< 사탄 >- 새벽말씀 후 기도 중 써진 시 05:37

입에도 담기 싫은 그 잡놈들
나의 사랑하는 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잡놈
사망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사탄.

끈적끈적 유혹하며 쳐다보는 소름끼치는 눈빛
악한말로 현혹되게 만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탄들.

지옥이 가장 합당한 사탄
지옥이 너무나 어울리는 사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탄
고약한 놈, 못된 놈, 잡놈들.

너희들은 빛 가운데 열썬도 하지 마라.
열썬도 하지 마라.
겁 없이 깔짝대다가 성령의 검에 찔리고 성령의 불에 태움 당하고
지옥 불에 던지워지게 될 사탄.

생명을 노략질하는 사탄
하는 것이 참으로 사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이다.

영원한 멸망의 길에 거하는 너희는 그 이름도 끔찍한 사탄이 구나.
물러나라, 열썬도 말거라.
주 예수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사탄 영원히 사라지고 말 추악한 사탄.
이제 너희의 끝 날이 다가왔다.

- 기도 중 예수님께서 섭리사에게 주신 시 05:55

< 내 애인은 척척박사 >

주님 말씀 순종 하며
주님 심정 알아주는 척척박사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 마음 기쁘게 하는 척척박사

아픈 자들 위로하며
그의 심정 기도하는 척척박사

사탄 잡놈들 행위 살펴보며
주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척척박사

생명 말씀 깨달아
주님 사랑 전해주는 척척박사

나와 함께 그 나라 가기위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척척박사

나의 깊은 사랑 회복하니
내 사랑의 내 심정의 척척박사

이 시를 통해 주님심정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척척박사 되시길 바라고 사탄을 물리치는 역사를 기도하고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육으로까지 치면서 섭리를 방해하는 사탄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